

산마늘의 자생지별 외부형태 및 수리분류학적 연구

External Morphology and Numerical Taxonomy among Habitats of *Allium victorialis* var. *platyphyllum*

유기억¹⁾, 김원배¹⁾, 박희준²⁾, 임상철²⁾

¹⁾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시험장, ²⁾상지대학교 자원식물학과

유용 산채류인 산마늘의 자생지별 유연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3개 집단에 대한 외부형태형질을 비교하고, outgroup을 포함한 72개의 OTU를 대상으로 14개의 외부형태형질에 대한 주성분분석과 유집분석의 수리분류학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외부형태에서는 인경의 색깔, 엽신의 길이와 폭, 엽병의 길이, 잎의 길이, 화경의 길이, 화피 열편의 길이와 폭, 수술의 특징 등이 유의성 있는 형질로 나타났다. 주성분분석 결과 주성분 1(51.0%), 주성분 2(24.9%), 주성분 3(0.8%)이 총 84.1%의 높은 기여율을 보였으며 주성분 1, 2를 이차원공간에 도시한 결과 울릉도집단은 다른 두 집단과 구별이 가능하였다. 평균연결방법과 Ward방법에 의한 두 가지 유집분석 결과, 유집군들의 구성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집단간에는 울릉도를 제외하고 지리산과 오대산 개체들은 서로 중복되어 나타나 구별이 불가능하였다.